



〈도개비〉 김은숙 작가의 실화!  
이병헌, 김태리의 구한말 시대극  
희로운 의병, 그리고 사랑 이야기가

민주연구원 **문화비전포럼** 공개토론회

# 이제는 선샤인 시대, ‘미스터선샤인’으로 읽는 시대코드

정치, 사회,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2018.10.18(木) 오후 4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민주연구원 문화비전포럼 공개토론회

## 이제는 선샤인 시대, ‘미스터선샤인’으로 읽는 시대코드

정치, 사회,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 ■ 개 요

- 일 시 : 2018.10.18(木) 오후 4시
- 장 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 주 최 : 민주연구원
- 주 관 : 민주연구원 문화비전포럼

### ■ 식 순

내 용	주제 및 패널
	사 회 : 이 용 민 연구위원 (민주연구원)
축 사 · 인사말	김 민 석 원장 (민주연구원) 황 명 선 시장 (충청남도 논산시) - ‘미스터선샤인’ 세트장 유치
	좌 장 : 김 민 석 원장 (민주연구원)
토 론 제 기	‘미스터선샤인’으로 읽는 시대코드 김 민 석 원장 (민주연구원)
자 유 토 론	‘미스터선샤인’이 던지는 정치적 함의 김 현 성 본부장 (민주연구원 소통전략본부) 구한말의 역사적 의미, 민족공간의 과거와 미래로서의 동북아와 유라시아 이 병 한 교수 (원광대학교 동북아연구소) ‘미스터선샤인’으로 보는 문화예술정책적 코드 김 기 봉 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스터선샤인’에 담긴 문화코드와 향후 한류의 방향 이 영 미 문화평론가





# Contents

민주연구원 문화비전포럼 공개토론회 : 이제는 선샤인 시대, ‘미스터선샤인’으로 읽는 시대코드 - 정치, 사회,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 ■ 토론제기

- ‘미스터선샤인’으로 읽는 시대코드 ----- 1  
김민석 원장 (민주연구원)

## ■ 자유토론

1. ‘미스터선샤인’이 던지는 정치적 함의 ----- 9  
김현성 본부장 (민주연구원 소통전략본부)
2. 구한말의 역사적 의미, 민족공간의 과거와 미래로서의 동북아와 유라시아 ----- 17  
이병한 교수 (원광대학교 동북아연구소)
3. ‘미스터선샤인’으로 보는 문화예술정책적 코드 ----- 23  
김기봉 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 ‘미스터선샤인’에 담긴 문화코드와 향후 한류의 방향 ----- 33  
이영미 문화평론가



토론제기

# ‘미스터션샤인’으로 읽는 시대코드

김민석 원장  
(민주연구원)





## ‘미스터션샤인’으로 읽는 시대코드

김민석 원장 (민주연구원)

- 문화와 예술은 시대의 산물이자 시대를 배경으로 함
- 드라마도 마찬가지
- 작가의 의식, 무의식을 통해 시대를 반영하는 선행지표이자 동행지표
- 특히나 지금은 문화의 시대
- 조지클루니와 유재석, 김제동 같은 문화계의 스타들이 문화계를 넘는 대중적 영향력
- 청소년의 꿈이 물리는 선망의 직업 또한 판검사, 의사에서 연예인으로, 실제 돈과 영향력의 흐름도 그렇게 바뀜
- 문화는 이제 언론에 이어 새로운 권력으로
- 특히 한류의 대한민국에서 문화의 의미는 각별
- 「미스터션샤인」을 보고나서 애국심을 다지고 일본관을 새로 하고 역사의식을 추스르는 대중을 보며, 과연 삶에 대한 영향력과 몰입도라는 측면에서 “예술(순수예술)이란 무엇인가?”,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 장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어떤 예술가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2019)을 앞둔 시점에서 「미스터션샤인」이라는 초인기 드라마가 던진 다양한 선행적·동행적 시사과 코드를, 시대흐름에 깨어있어야만 하는 집권당의 썩크탱크가 국회라는 공간에서 토론주제로 삼은 파격의 의미는 매우 큼
- 각 분야를 뛰어넘는 융합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며 나름대로 몇 가지 코드(시사점)읽기를 통해 토론의 실마리로 삼고자 함
- 이번 토론은 각자 준비된 발표문을 낭독하고 나면 시간이 촉박해 마치는 흔한 발표회가 아니라, 공통의 주제를 찾아 수다와 방담이 허용되는 진정한 자유토론이 되기를 희망함

아래 제기하는 10가지 코드는 문화비평에 소양이나 경험이 없는 문외한의 입장에서 각 분야 참석자들의 토론을 위해 다양한 측면을 제기해 본 것인 바, 그 중 서너 개의 핵심적 코드에 토론을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임

## 코드 1: 선샤인시대 코드

- 드라마 초반에 던져진, '해피엔딩'일지 '새드엔딩'일지에 대한 상징적 질문은 우리의 민족사 자체의 성격 내지는 국면에 대한 진단과도 맥이 닿아있음
- 또한 '선샤인'은 주인공 개인에 대한 상징일 뿐 아니라, 민족사의 시대적 규정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중의적으로 담고 있음
- 통상 낙후와 좌절, 종속화의 대명사로 치부되던 구한말이 실은 다양한 계층과 신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경로와 계기를 통해 민족의 자주와 독립, 자존과 자유를 향한 투쟁에 눈뜨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일체감과 동지애를 구축해가며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 자체가, 구한말 역시 면면한 자부심 속에 흘러온 민족사의 일시적 난관일 뿐이라는 점을 웅변
- 개인과 집단, 국가의 역사가 공히 굴곡과 성쇠를 담은 도도한 진전인 것처럼, 구한말과 일제강점의 시기 또한 '결국 반드시 승리할 중국'을 향해 때로 무모한 패배를 감수하고 투쟁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민족사의 한 장면이며
- 나아가 양반부터 노비, 이방인에 이르는 다양한 구성원을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낙관적 민족주의가 결국 일시적·개인적인 새드엔딩을 넘어 현실에서의 승리인 해피엔딩으로 귀결되며 자주-통일-진정한 독립이라는 새로운 '선샤인시대'의 개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당당하고 낙관적인 민족주의, 글로벌한 민족주의가 드라마 전편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메세지이며 대중적 감동과 애국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기본서사
- 하여 우리는 분단극복-통일-남북공동의 제2의 도약으로 이어질 현시기(3.1운동/임시정부 100년)를 주저 없이 '이제는 (민족사가 도약·융성할) 선샤인시대'라고 부르는 것

## 코드 2: 주체적 개방의 역사 코드

- 구한말 이후 100년의 역사는 자주성과 주체성, 주권의 측면에서 남북 모두에 도전의 시기.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대화두 자체가 '주체적 개방', 즉 여하히 주체적으로 개방할 것인가? 또는 주체적으로 개방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

- 신라는 개방적 외교에 능해 통일을 주도했으나 주체성의 한계로 민족공간을 위축시켰고, 군사강국 고구려는 주체성을 자랑했으나 결국 패망했음. ‘주체’와 ‘개방’, ‘주체적 개방’의 화두는 오늘의 남과 북에까지 이어지는 국가생존의 기본 화두
-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주체적 개방의 길은 어떠해야 하는가?

### 코드 3: 정통성 코드

- 非자주, 종속, 식민, 분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체적 결단보다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의 피동적 선택으로 전락
- 동학농민군, 의병 이후 다양한 정치사회세력이 명멸한 가운데, 이승만과 백범김구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역사적·민주적 정통성을 유지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최고지도자로 배출한 세력과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를 배출한 세력으로 나뉘어온 것이 현실
- 촛불 이후 모든 제도권 정치세력의 당대표들이 현시점에서 김대중-노무현과 연관된 정치 경력을 지닌 이들로 구성되어있다는 역설적 현실은 이미 기존의 보수와 진보, 여와 야를 떠나 ‘(정치적) 정통성’이 하나의 기본적 필요조건이 되어가고 있다는 반증
- 미완의 친일잔재 청산이라는 숙제를 안은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100년의 시작은 대중들에게 지난 100년을 돌아보며 정통성이 결여된 세력을 퇴장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정상적 이념과 능력을 갖춘 사회세력들에 의한 새로운 대립·경쟁구도를 요구하게 될 것임
- 하여 정통성은 낡은 과거지향적 어젠다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부활하는 어젠다가 되지 않을까?

### 코드 4: 한반도 대정치 코드

- 정치에 있어 정통성의 천착은 국내에 있어서는 촛불시대를 맞아 압도적인 탄핵민심에 부응했던 (여야)정치세력, 평화시대를 맞아 전폭적인 남북정상회담 지지 민심에 부응하는 (여야)정치세력, 나아가 평화와 통일을 향해 선의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구도 하에 한반도 대정치의 새 장을 열어가야 할 남과 북(노동당)간에 새로운 정치적 협력과 연합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정서적 공감대의 한 실마리를 찾는 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 그런 점에서 이번 드라마의 감상을 김정은 위원장 등 북의 지도부에게 반공식적으로 권유하는 발상의 파격은 어떠할까?

## 코드 5: 동북아코드

- 경성, 동경, 만주를 넘나들며 진행되는 「미스터선샤인」처럼 최근 몇 해 ‘뜨는’ 드라마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영어나 일어, 중국어를 가볍게 섞어 쓰는’ 주인공들이나 배경의 설정 등은, 단순히 한류드라마의 수출을 염두에 둔 흥행전략일 뿐 아니라,
- 이미 100년 전 ‘만주와 일본, 중국 등을 무대로 자유롭게’ 삶을 펼치던 한반도인의 DNA의 반영이자,
- 식민과 분단으로 일시적으로 위축되어온 민족공간을 다시 광활하게 펼치고자 하는 자연스런 내적 요구의 반영이며,
- 동시에 글로벌화라는 시대사조에 맞춰 훨훨 날고 뛰어나가고 싶은 젊음의 꿈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 그런 점에서 남북교류를 넘어 철도공동체, 새로운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꿈은 새로운 100년을 맞아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 코드 6: 의병-촛불코드

- 많은 이들을 감동시킨 의병 사진이 상징하듯 장삼이사와 행랑아범 등의 애국심과 용기를 담아낸 의병의 재발견은 좌우와 남북으로 갈린 민족운동사의 뿌리이며
- 오늘의 촛불시민으로 이어진 민초의 힘에 대한 존중이며 역사적 진실임

## 코드 7: 페미니즘 코드

- 87년 민주화 이후 88년 노동자대투쟁이 이어졌듯, 촛불혁명 이후 최초로 ‘혁명’이 붙은 사회현상이 ‘미투혁명’이라는 점은 페미니즘의 궁극적 가치와 지향이 완전한 민주주의이자, 소수자 일반을 대변하는 시각전복이며, 또 그래야 한다는 점을 시사
- 보호받는 양반 여인이 아니라,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선택하고 대의를 위해 불꽃의 삶을 선택하는 투사로서의 여성과 그를 보호하는 연모자들이자 동지로서의 세 남자를 지켜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사
- 최근 발견된 독립투사 출신의 여성 경찰 간부들의 사례처럼, 더욱 적극적인 ‘주체적 여성상’의 발견과 해석이 필요함

## 코드 8: 구한말과 고종의 역사 재해석 코드

- 구한말과 고종에 대해 부정적 인식과 평가 위주로 해석하고 평가해온 종래의 일반적 역사 서술은 의도하든 아니든 민족역량과 주체적 개방시도를 폄하해온 식민사관과 맞닿은 측면이 존재해왔음
- 최근 일부 역사학계와 정치학자들 사이에 일고 있는 구한말-대한제국-고종 등에 대한 실증적 재해석을 기존 역사학계의 관심을 넘어 적극적으로 주목할 필요. ‘한계는 있었으나 주체적이고 적극적 노력이 존재했고 그 노력과 시도가 역량의 한계와 국제적 현실 앞에서 좌절된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구한말 대한제국을 무기력한 실패로만 보는 관점과는 다를 것임
- 실제 독립협회 조직의 지시, 안중근 거사의 지시 등 고종에 관한 새로운 사료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 국호와 태극기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적극적 재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런 문제들은 나아가 향후 남과 북 간에 역사평가와 해석의 교류라는 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

## 코드 9: 통일된 문화선진국 코드

- 엄혹한 반일투쟁의 최전선에서 독립국가의 실낱같은 가능성을 향해 뛰었던 백범 김구가 그리던 국가상이 ‘품격 있는 문화국가’였다는 놀라운 과거사는, 경제강국과 군사강국의 꿈과 자랑을 품었던 남과 북이 한계에 부딪친 이후 함께 새로 설정할 통일국가의 비전이 ‘세계 최정상급의 문화국가’가 되리라는 가슴 뛰는 미래로 이어지고
- 한류, 싸이, BTS의 남(南)과 능라도 카드섹션의 북(北)이 만나 융합해낼 걸출한 공동문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현실적 역량으로 담보될 것임
- 그런 점에서 좌와 우, 남과 북이 갈라지기 전의 거의 마지막 시점인 구한말을 소재로 하여 남과 북 누가 보아도 부담 없이 감동할 만한 정서적 성취를 이루어낸 「미스터션샤인」은 향후 남북 공동창작의 가능성과 경로 및 도달해야 할 수준을 시사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만한

## 코드 10: 「드라마 한류-시즌 2」 코드

-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저력에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선도가 합작되어 시작된 문화한류는 겨울연가-대장금-별그대-태양의후예-싸이-BTS로 이어져 이제 대한민국의 흙수저 청년들이 빌보드를 점령하고 유엔단상에 서는 수준으로 도약하였음
- 국민이 향유하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삶 그 자체로서의 문화라는 측면과는 별도로, 최고급 수출상품이자 국가경쟁력으로서의 한류 문화는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저성장의 시대에 새로운 집중을 요구받는 온국민형(型) 산업모델이자 수출모델
- 부분적으로는 콘크리트 투자 이후 '사람과 지역'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요구되고, 생활 SOC투자가 중시되는 현시점에서, BTS형(型) 수출모델, 온국민형 생활문화SOC의 개발, 문화산업의 생태계 혁신이 요구됨
- 구한말과 독립운동의 역사적 소재를 '자유와 독립을 향한 투쟁'이라는 글로벌한 정서로 풀어낸 「미스터선샤인」의 성과는, 2차 세계대전 등 각종 전쟁이나 민족해방투쟁이 시공을 불문하고 인류의 사랑을 받는 보편적 문화적 소재인 것처럼, 식민지-독립-분단-전쟁-평화-통일이라는 민족사의 대하를 드라마로 풀어낼 무한한 주제와 소재의 보고(寶庫)라는 축복이자 선물로 이어질 것임
- 이런 점에서 문화종사자들의 분발, 콘텐츠 산업과 남북문화교류 진흥 등 세종 이후 최대의 한반도 문화 르네상스를 선도해야 할 정부의 지혜와 결단, 추진력이 필요한 시기임
- 마지막으로 애쓰신 작가, 배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문화가 기쁨이자 재미이고, 경제이자 산업이며, 교육이자 애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셨음

**“평화로운 통일조국, 초일류 문화국가에서 씨유 어게인!”**



자유토론 1

# ‘미스터션샤인’이 던지는 정치적 함의

김현성 본부장

(민주연구원 소통전략본부)



## ‘미스터션샤인’이 던지는 정치적 함의

김현성 본부장 (민주연구원 소통전략본부)

“이 드라마로 ‘아무개 의병’들이 기억되길 바란다”(김은숙 작가)

“신미양요를 기준으로 의병에 대해 조사했는데 마음이 아팠다.

실제 기록을 찾아보고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이응복 피디)



## □ 정치적 의미

### ○ '시대정신'과의 조응 : 존엄의 시대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격변하는 조선을 지나는 중이었다.”

- 외세에 저항하는 주권독립 : 총든 노비·제빵사·인력거꾼... 위기의 나라 구하러 나선 민초들 역사의 주인공으로 재소환
- 핵심인물들 위주였다면 이런 애틋한 마음이 아니었을 것이다. 민초의 힘을 부각한 것이 이 드라마의 묘미
- 신분제 사회가 무너지면서 오는 개인의 독립 : 개화기 이야기는 많았지만 늘 진지했고 개인의 감정은 사치였음
- 의병은 희노애락을 함께한 우리의 이웃이었음

### ○ 촛불의 물음 : '이게 나라냐?'

“전쟁을 해보면 말입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여인도 어떤 포수도 지키고자 아등바등인 조선이니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진 마십시오.”

- 싸우려는 백성들 vs 내주려는 친일파들
- 가장 큰 권력은 국민 : 노비로 살아온 그들의 서러움과 서러움을 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의병의 마음
- 가상의 인물인 이완익을 중심으로, 송병준, 이병무 등 대한제국 친일파 관료들을 끊임없이 부각
- 헌법 정신의 역사적 배경(1조 2항) :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 시대와의 대화 : 20~40대 역사의식 고취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엔 누가 사는거요?

백정은 살 수 있소?

노비는 살 수 있소?”

- 의병과 여성 : 그동안 개화기는 일제의 침탈과 저항 중심으로 다뤄졌다면 조선의 신분사회와 유교적 전통이 서구의 신문물과 만나면서 허물어져가고 등장하는 신여성의 탄생에 주목  
“의병과 독립운동가들을 때려 잡은 친일파의 묘는 국립묘지에 있고, 의병들은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모른다”

“친일파 명단을 정리해서 공유하자”는 의견을 주고받으며 친일파 후손이 운영하는 관광지 정보도 알림.

“6월1일 의병의 날을 기억하고 태극기라도 달자”

최근 제주 해군지기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전승기(육일기)를 달고 입항하겠다는 일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냄

- 내 부름에 대한 응답



○ 항일 드라마 제작 활력

“눈부신 날이었다.  
우리 모두는 불꽃이었고 모두가 뜨겁게 피고 졌다.  
그리고 또다시 타오르려 한다.  
동지들이 남긴 불씨로. 잘 가요 동지들.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 내년 임시정부 수립 100돌을 앞두고 준비하는 드라마들에 힘을 실어줄 것
- 넷플릭스를 통해 유통됨으로써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갖춘 한류 드라마의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함

□ 미션

- 잊지 않아야 잃지 않는다
- 국가는 국민입니다
- 빼앗길 지언정 내어주지는 말자



## □ 에필로그 : 벼슬보다 더 좋은 ‘Love’의 힘

개인적 사랑이든, 조선에 대한 사랑이든, 아니면 인간에 대한 사랑이든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런 어려운 불꽃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더라도 “살아남으라” 말해주는 이들의 애뜻한 사랑이 없었다면.(정덕현 컬럼 중)





자유토론 2

# 구한말의 역사적 의미, 민족공간의 과거와 미래로서의 동북아와 유라시아

이병한 교수

(원광대학교 동북아연구소)





## 구한말의 역사적 의미, 민족공간의 과거와 미래로서의 동북아와 유라시아

이병한 교수 (원광대학교 동북아연구소)

### 1. 19세기말-20세기 초에 대한 지리적 상상력

태평양을 지나 미국에서 돌아온 최유진

현해탄을 지나 일본에서 돌아온 구동매와 김희성

1948년 이후 남한의 지리적 경험을 구한말에 투영한 것 아닐까?

북조선의 관점에서 19세기말-20세기 초를 회고한다면 어떠할까?

신미양요와 병인양요 이전에 이미 러시아와 접촉(1860년 연해주 건설)

‘근대적 이주’의 출발 또한 함경도에서 연해주로.

선교사 또한 서방의 가톨릭과 개신교 못지않게 동방정교회 선교사들이 연해주와 만주를 거쳐 조선반도로 남하.

고종의 <대한제국> 선포 직전에 아관파천이 있었다는 의미심장한 사실.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오면서 근대적인 국가모델 제시해.

즉 조선왕조에서 대한제국으로의 이행기에 러시아가 존재.

아관파천으로부터 반세기 후에 북조선 건국.

김일성은 러시아어에 능통, 스탈린에 키릴문자로 쓴 편지를 쓸 수 있는 지도자.

기왕의 한-중-일 중화세계에서 유라시아에서는 ‘대항하시대’를 통해 러시아가 동북아로, 아메리카에서는 ‘대항해시대’를 통해 미국이 동북아로.

유라시아 대륙 러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미국이 한반도에서 만났던 20세기 초.

결국 20세기 중반 이후 동/서 냉전으로 한반도의 분단.

한반도의 탈분단, 재통합 과정은 19세기말-20세기 초에 대한 지리적 상상력 재고

미래의 지리적 상상력과 직결.

북극항로 열리고 베링해협으로 유라시아 동단과 아메리카 서단이 해저터널과 다리로 연결  
구대륙과 신대륙이 직접 이어지는 신시대로 진입해

한반도 : 유라시아와 아메리카가 만나는 신/구대륙의 접점으로

남/북이 각자 경험한 지리적/역사적 경험의 대통합으로

남/북 합작 드라마와 영화 제작 가능성 무궁무진해

## 2. 사상적 회통력

“주체적 개방”의 실패 → 비주체적 개방 : 개화파 → 친일파 → 친미파

주체적 비개방 : 척사파 → (굴절된) 주체사상

남한의 민주화 과정 : “개화우파”에 대한 “개화좌파”의 도전

한국의 민주당 및 민주화 세력 또한 ‘20세기 서구형 민주주의’ 돌파하지는 못해.

전 지구적인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의 “새 정치”, “새 민주”의 단서는 어디에?

다시 19세기말-20세기 초의 재인식이 중요한 까닭

기존의 역사서술 : 개화파 ↔ 척사파

그러나 실제로 민중/민초의 다수는 “개벽파”

동학운동 : 자생적 근대화, 토착적 민주화 운동

동학운동 내부에서 이미 신분제 해체, 조선의 적폐 청산 운동.

조선의 개량운동이었던 실학보다 조선의 적폐청산 운동이었던 동학으로 중심 이동

동학운동이 일본에 의해 진압된 이후 되살아난 것이 의병운동.

즉 동학운동 당시에만 해도 민중과 지배층(양반, 선비)간 대연합 이루어지지 않아.

의병운동의 획기성이 상/하를 막론한 전 계층, 만민연합

상/하의 길항 못지않게 개화파와 개벽파의 대연합 좌절이 식민지 전략으로

3.1운동의 획기성 = 최초의 개벽파와 개화파의 대연합 운동.

천도교(동학의 후예)가 선도하고 기독교(서학의 후신)이 합작한 운동

일국의 독립운동을 넘어서는 동/서 문명, 신/구 문명 회통운동으로 자리매김해야.

3.1운동 이후 상하이에서는 임시정부 수립되고, 반도에서는 <개벽>(1920) 창간해

1920년대 동/문명, 신/구 문명 회통의 기관지

좌/우 이념 갈등과 동/서 냉전에 휘말리면서 문명 회통의 회로가 차단되어.

김구의 문화국가(20세기) 비전과 21세기 남북통합의 신문명국가와 통한다.

남북통합의 통일헌법 = 동/서 문명, 고/금 문명 융합의 핵심 담아야

G2 미국헌법과 중국헌법을 뛰어넘는 인류의 비전 담아야.



### 3. 역사 감각의 조정

아편전쟁 이후 지난 150년, 인류사/지구사에서 매우 예외적인 서세동점기  
포스트-웨스트 시대 진입.

지난 천년의 역사에 대한 재인식

특히 유라시아 대일통을 달성했던 몽골제국기와 포스트-몽골 시대 각광받아  
조선의 개국과 세종의 문화융성 또한 고려 말의 '세계문화' 접촉의 유산이야  
태조 이성계의 가문 - 몽골과 여진의 유산 상속해.

북방 네트워크와 유라시아 연결망을 통하여 중원과 다른 '한글 문화' 창달

19세기 이전에도 조선은 '쇄국' 상태가 아니라 유라시아와 긴밀히 소통해.

19세기 이후의 변화는 유라시아에 보태 아메리카와도 연결된 것.

유라시아-아메리카와 만나는 접속지대로서 한반도의 신문명국가, 새로운 문화융성의 가능성과  
잠재력 폭발해

### 4. 세대 문제라는 복병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알자지라(아랍어) 방송의 평가

1984년생 김정은과 1987년생 김여정 : “세계에서 가장 젊은 리더”

김정은과 김여정이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들과 세대 비슷해

반면 동시기 한국의 베스트셀러 : “82년생 김지영”

80년대 태어난 북조선의 지도자와 80년대 대학을 다닌 남한의 집권세력

남/북의 세대교체, 체제혁신 견주어 보아야

집권당의 당원 교육, 국가의 시민 교육

## 5. “스위스”라는 장소

김정은과 김여정이 유학한 곳.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소국.

중국, 러시아, 남한, 일본 사이에 있는 북조선

스위스 : 유럽에서 가장 글로벌한 국가, UN과 EU 등 주요 국제기구 자리해

다문자도시, 다언어국가 : 표지마다 영어, 독어, 불어, 이탈리아어 표기해.

해방 100주년(2045)과 건국 100주년(2048)을 내다보는 김정은의 발상은?

동북아의 허브국가?

겨울에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 → 여름에는 중국 다렌 포럼

다렌에서 시진핑-김정은 정상회담.

다렌의 지하철에는 중국어-영어-일본어-한국어-러시아어 안내방송

러시아-중국-북조선 접경의 훈춘에는 4개 문자/언어 도시 들어서.

연변대학교 훈춘 국제캠퍼스는 “동북아 연합대학” 표방해

다문자도시, 다문명국가의 비전 : 남/북의 경합과 통합.

Conquer(19-20세기) ↔ Connect(21세기)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많이 연결하고 융합하는 쪽이 이르고 간다.

영토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길을 내는 쪽이 길들여 간다.

신대륙과 구대륙 연결하고, 고전문명과 근대문명 회통시켜 인류 “신문명의 개략” 밝힌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의 개략>, 올해는 메이지유신 150주년)

남과 북이 합작하여 21세기의 <신문명론의 개략> 밝혀야.

“탈아입구”가 아니라 유럽도 아시아도 아메리카도 한반도에서 연결된다.

자유토론 3

# ‘미스터션샤인’으로 보는 문화예술정책적 코드

김기봉 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미스터션샤인’으로 보는 문화예술정책적 코드

김기봉 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1. 코드의 의미

#### □ 정책 코드가 의미하는 것

##### ● 코드의 이중적 의미

###### - 코드 [code]

1. 특정한 사회나 계급,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만 통하는 규약이나 관례.

(예시) 정치 코드 : 대화가 잘 통하는 걸 보니 우리는 코드가 맞는다.

###### - 코드 [chord]

1. 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이 함께 울릴 때 어울려 나는 소리

(예시) 기타 코드 : 주로 기타 연주에서, 손가락으로 정해진 현을 눌러서 만들어 내는 화음

##### ● 일치와 화음의 의미

- 정책의 일관성과 일치 (하나의 목소리와 체계적 집행)

- 문화(콘텐츠)산업과 그 바탕이 되는 예술 및 콘텐츠의 연관 및 생태계 선순환 (다른 분야, 연관 계통)

### 2.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의 성공 요인 및 과제

#### □ 성공 요인

##### ● 과감한 투자 및 제작 환경

- 이미 세계 최대 동영상 온라인서비스업체 넷플릭스에서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으로부터 방영권을 약 30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190여개 국에 7월 7일부터 차례로 서비스가 될 것으로 알려짐

- 인기 드라마 작가인 김은숙 대본, 이응복 PD, 이병헌·김태리 등 유명 배우 출연 등과 성공했던 드라마 <도깨비> 제작진의 콤비 등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 김은숙 작가는 '파리의 연인'(2004), '시크릿 가든'(2010~2011), '태양의 후예'(2016) 등 수많은 인기작과 케이블 시청률의 역사를 쓴 '도깨비'(2017)를 탄생시킨 주인공. 맡은 역할마다 최고의 연기력을 보여주는 이병헌과 최근 영화계 대세 여배우로 꼽히는 김태리 캐스팅도 주목
- 드라마 제작을 한 '스튜디오 드래곤'은 <또 오해영>, <공방가는 길>, <캐리어를 끄는 여자>, <시카고 타자기>, <나인> 등 화제작을 만들어낸 회사
- '스튜디오 드래곤'은 CJ E&M의 드라마사업본부가 분할한 회사. 자회사로 JS픽처스, 문화창고, 화엔담 픽처스, KPJ 등의 제작 자회사와 tvN, OCN 등 방송채널을 소유
- "스튜디오드래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中 수출 기대 커" -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은 30일 스튜디오드래곤에 대해 올해 하반기 방영 예정인 tvN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중국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스터 선샤인은 오는 7월 방영 예정이다. 올해 한국 드라마 중 최고 흥행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미스터 선샤인의 방영이 다가오며 넷플릭스 판매, 중국향 판매 재개 가능성을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며 "확정된 사안은 없지만 지난 2월부터 중국 1위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아이치이'를 통해 예고편이 조회되고 있으며, 중국 유명 평점사이트 도우반에서도 오는 7월7일부터 24부작으로 방영될 예정이라고 소개됐다"
- 기획, 제작관리, 유통, 사업화는 스튜디오가 책임지고 제작은 프로덕션이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로 효율성 극대화하는 체계
- 이젠 OTT (Over The Top) 시대
- 기존 통신 및 방송사가 아닌 새로운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드라마나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창작-유통-소비 방식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
- 정해진 방송 전용망으로 콘텐츠를 전송하던 기존의 방송 서비스와 달리 OTT는 불특정 다수의 접근이 용이한 범용 인터넷으로 콘텐츠를 전송하기에 이용 시간이 자유롭고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몰아보기 등을 통해 시청 가능
  - OTT 서비스는 기존 방송의 일회성·단방향성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원하는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 동영상 콘텐츠를 온디맨드(On-Demand) 방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 서비스
  - 현재 전 세계 OTT 서비스 시장은 미국이 주도. 넷플릭스와 아마존, 유튜브 등이 대표적인 OTT. OTT가 양질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며 몸집을 키우고 빠른 성장을 보이고

- 있음. 기존 방송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그런 이유 때문에 OTT에 대해 방송업계는 따가운 시선을 보냄. OTT가 방송 사업자처럼 텔레비전과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지만 규제는 없기 때문. 팟캐스트 방송의 사례 참조

## □ 향후 정책과제

- 문화산업(콘텐츠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
  - 자본, 기술, 콘텐츠, 인력 등의 시장생태계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규제의 완화와 강화가 동시 요구
  - 다양한 콘텐츠 실험과 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독점 규제와 공정보상 등 규제 또한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단역배우, 무대기술 스태프, 기획자 등 다양한 인력 유입과 안정을 통한 제작환경 공정성과 유통과정의 투명성 요구됨
  - 방송 분야의 구성작가, 출판계의 교정 교열 편집자, 영화 및 드라마 촬영 현장의 단역 및 엑스트라 배우와 스태프, 만화 애니메이션 웹툰 시장에서 활동하는 단순 작업 창작자들에 대한 현장 인력들의 권익 보호가 필요
  -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산업 제작 현장에 벌어지는 노동시간, 노동환경, 권위와 위계에 의한 부당한 지시와 강요 등에 대한 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
  - 문화콘텐츠 산업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유통독점은 매우 심각한 상황. 문화콘텐츠의 유통독점은 문화자본의 영향력이 그만큼 막강하고 창작자들의 권리가 위축된다는 것을 입증
  - 문화콘텐츠 산업의 독점에 따른 시장 불균형의 주원인은 유통 불공정 행위
  - 문화콘텐츠 분야의 기층노동인력들이 어려운 생활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
    - \* 중소 제작사 붕괴로 인한 기업구조 양극화\*, 콘텐츠 획일화 발생
    - \* 기업수로는 전체의 7.8%에 불과한 매출액 10억 원 이상 기업이, 전체 콘텐츠 산업매출의 86.1% 차지
  - 제작기업과 제작종사자 간의 고용관계에서도 저임금, 임금 체불 등 불공정 관행 및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논란 계속
  - 방송 스태프의 76.2%가 서면계약 없이 제작참여, 급여체불 경험 42.3%(17.9월). 여전한 패션업계 ‘열정페이’…브랜드 절반만 최저임금 준수(16.1.26, 연합뉴스)

- 문화콘텐츠 시장의 근본적인 불균형 원인은 대중의 문화적 취향인가? 유통의 불공정 행위인가?
- 문화콘텐츠의 종다양성 부족과 산업생태계의 근본적인 쏠림현상은 콘텐츠가 다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시스템(제작사, 투자자본, 플랫폼의 삼각동맹)이 문화콘텐츠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을 통해 한류, K-POP, K-Culture 등의 성장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브랜드 가치 확산 등의 긍정적 성과 발생. 최근 싸이와 BTS (방탄소년단)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의 경제적 가치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남북 분단 등으로 인하여 전쟁 가능성 높은 지역, 부정적 이미지가 최근에는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과거의 위기 요인이 미래의 기회 요소로 바뀔 수 있음. 이에 한국에 대한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3. 새로운 가능성과 그에 필요한 정책

-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19년은 기회의 해
  - ‘미스터 선사인’의 남다른 소재 역시 차별화 무기 중 하나다. 이 이야기는 가쓰라 태프트 밀약이 이뤄진 1905년,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기 직전을 배경으로 한다. 그동안에도 항일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았고 드라마도 이따금 있었지만, 독립운동의 시초를 그린 작품은 없었다. “우리나라가 넘어가기 전 끝까지 항거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기억은 잘 남아있지 않다”며 “이 드라마가 차별화되는 부분도 바로 그 점”
  - 역사 드라마와 영화 등 소재와 시점의 다양화 가능성을 높였음
  - 최근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교류가 활성화되면 역사적 시점은 더 올라갈 수 있음. 북방민족, 기마민족, 몽골,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등 기존의 서구적·근대적 시점과 관점을 넘어선 새로운 지평을 열 수가 있음. 이는 엄청난 콘텐츠와 새로운 시장 개척이란 점에서도 기대를 높일 수 있음
- 새로운 제작환경과 유통망 개척
  - 넷플릭스 등을 통해 선 판매, 세계적 유통이 가능해짐, 콘텐츠만 좋다면
  - 유라시아가 열리면 분단, 서구화, 미국화에서 이슬람, 힌두문명 등 새로운 문명권과의 과거 문화사 교류가 밝혀질 것임. 이를 통해 다양한 시선과 콘텐츠 융합·복합이 가능해



- 질 것이며 수많은 창·제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됨. 근대화 과정을 통해 이식된 서구적 세계관과 미국적 가치관을 극복하게 되면 새로운 대륙과 문화코드가 열릴 것임
- 과거 드라마 〈대장금〉의 중동 인기
-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 전통적인 매체(TV 방송 등)의 편성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소재, 장르에 대한 뉴미디어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 ● 영국 콘텐츠산업 〈해리포터〉

- 문화산업(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계 선순환이 중요
- 영국 해리포터 성공에는 2만 개가 넘는 스토리텔링 하우스 존재.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우리도 이야기산업의 토대 구축 가능
- 영국 여왕보다 부자인 스타 작가,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던 미혼모에서 전 세계 콘텐츠 산업을 좌우하는 여걸로 변신한 현대판 세헤라자데. 판타지 소설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롤링은 이 작품으로 30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스토리텔링의 대명사
- 《해리 포터》 시리즈는 64개 언어로 번역돼 4억부 이상 팔렸고 영화 흥행 수입만 40억 달러에 달했음. 주인공의 브랜드 가치도 40억 달러를 넘음. 첫 출간 당시 무일푼이었던 작가의 현재 재산은 10억 달러 이상 평가됨. 책 배달에 사용된 페덱스 트럭 9000대, 작가 홈페이지 방문자는 8주 만에 2억2000만 명을 넘었고 미국의 해리 포터 테마파크와 앞으로 개봉될 두 편의 영화까지 감안하면 조앤 롤링의 신화에는 끝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마케팅 전문가 수잔 기넬리우스는 《해리 포터》의 마케팅 전략을 분석한 신작 《스토리노믹스》에서 ‘스토리 산업’이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가 내놓는 ‘초대형 스토리텔링 상품의 성공 요소’는 5가지. ‘우수한 콘텐츠(제품), 감정적 개입, 입소문 마케팅과 온라인 버즈, 티저 마케팅과 지속적 마케팅, 브랜드 일관성과 자제’가 핵심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수한 콘텐츠. 《해리 포터》 시리즈와 같은 상상력과 신화는 유라시아 시대가 열리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것임. 이를 대비한 작가 양성, 기획자 육성 등이 필요함

## □ 정책 과제 및 추진체계 구축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중에서)

### ● 정책 과제

- 청년 예술인이나 기획자 등을 유라시아에 보내는 지원 사업 필요

- 권역별 차별화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한 상승효과 제고
  - \* 주요 교류대상 국가가 5개국(중, 일, 미, 불, 독)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북방 및 남방 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아메리카 등 교류대상 권역 및 국가 다양화 필요
  - \* 현재는 주로 미국이나 유럽 쪽을 선호하는데, 이를 정책적으로 북방, 중앙아시아, 유라시아쪽으로 보냄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몽골예술위원회가 협력하는 노마드 레지던스 지원 사업 참조
- 프리랜서형 근로방식 등 문화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노동관련 법제도 적용범위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제공(관계부처 협조)
  - \* 주요국은 미래 노동시장의 핵심 축인 프리랜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들의 사회적 인식변화, 법제도 적 규정, 정책적 지원을 확대
-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모든 인력들이 지위와 위계, 역할과 기능의 차이로 인해 차별 받지 않도록 공정한 환경을 마련해야 함

## ● 추진체계

-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통합적 문화산업통상 지원체계' 구축(관계부처 협의)
  - \* '통합적 문화산업통상 지원체계'구축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문화산업 해외 시장 진출을 획기적으로 지원 하기 위한 체계 구축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외문화교류부서, 콘텐츠진흥원 해외진출 지원부서, KOTRA, 해외문화원 등 전략 적 협력체계 수립 등
- '글로벌 원빌드(One Build)' 시장 전략 지원체계 마련
  - \*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한 콘텐츠 기획,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산업 지원체계 (글로벌 원빌드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마련 (\*게임콘텐츠 해외진출 전략을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산)
- 장르별·국가별·대륙별 콘텐츠 해외진출 기반강화
  - \* 콘텐츠산업 장르별 특화 마켓, 페어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전략적 지원 및 협력 (예. 부산국제영화제 PPP, 서울패션위크 등)
  - \* 전통 공연·시각 예술, 패션, 스포츠, 관광, 의료 등 한류의 국가별·대륙별 선호도에 부응하는 맞춤형 문화 교류협력 지원
- 한국문화콘텐츠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 \* 저작권, 표준계약서, 교류전시 및 판매, 홍보·마케팅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문화콘텐츠 해외 진출 을 위한 국제문화교류 에이전트 등 전문인력 양성
- 문화, 예술, 콘텐츠, 관광 분야에 대해 해외의 반응을 분석하는 '문화통상 빅데이터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지방정부와 민간 문화교류 지원 시스템 구축
  - \* 지자체와 민간의 문화교류는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단발성 행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지자체 와 민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형태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지원

- 문화 상호주의 정신에 기반하여 국가 간 문화협력·발전의 토대 강화
  - \* 해외문화원, 세종학당 등 운영·사업 예산 및 전문인력 파견 확대
  - \* 해외 국가와 협력 가능한 문화 시장조사 및 연구기능 확대
- 주재국의 문화예술 기관과의 협력 확대 및 조사·연구기능 강화
  - 다수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추진주체들이 네트워크의 한계로 문화교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기반조성 차원에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 필요

“세상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의 것”

“누가 다음 무대의 주인이 될 것인가”

남북을 통해 북방을 타고 중앙아시아를 넘어 유라시아로

“알로호모라! (Alohomora·해리 포터가 잠겨진 문을 열 때 사용하는 주문)”



자유토론 4

# ‘미스터션샤인’에 담긴 문화코드와 향후 한류의 방향

이영미 문화평론가





## ‘미스터션샤인’에 담긴 문화코드와 향후 한류의 방향

이영미 문화평론가

### 1. ‘왜 인기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지점

- 대중예술의 대중성은, 수용자 대중의 경험, 욕구·욕망, 취향, 인간과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예술적 관습 등을 바탕으로 생겨난다.(이영미, [대중예술 본색], 우리교육, 2016)  
물론 특정한 한 작품의 인기란, 창작자(작가, 연출자 등) 개인의 역량, 자본과 기획, 그 외 다양한 우연의 요소들에 의해 좌우된다.

그에 비해 그 인기가 ‘한 작품’이 아닌, ‘작품군’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 시대의 다수 수용자 대중의 경험, 욕구·욕망, 취향, 인간과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예술적 관습에 기인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 따라서 한 작품에 국한되지 않는 ‘인기 경향’의 분석이야말로, 민심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대중예술사를 살펴보면, 인기의 큰 변화가 거의 정치사적 시대구분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미스터 션샤인〉의 인기에서, 작가·연출자·출연자·스태프의 능력, CJ E&M 산하 스튜디오 오드래곤(김은숙 작가의 화앤답픽쳐스, 배우 전지현과 박지은 작가의 문화창고, 김영현·박상연 작가의 KPJ를 인수한 공룡 급 제작사)의 제작역량 등, 성공을 견인한 요소들의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이 작품이 드러내고 있는 ‘경향’을 읽는 것, 이 한 작품에 국한되지 않는 흐름을 읽어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2. 김은숙 작가조차 신데렐라 스토리를 벗어나다

- 최근 5,6년 간 TV드라마의 가장 두드러진 경향은, 1990년대 중반부터 15년 즈음 풍미한 신데렐라 스토리의 몰락, 그와 동반한 진지한 연애물의 몰락이다.(물론 이는 드라마의 첨단 경향을 이끄는 10시 이후 드라마에 국한한 이야기이다. 작은 제작비를 투여, 중노년 시청자, 다소 올드패션의 경향이라 할 수 있는 일일드라마, 8시대 주말드라마, 아침드라마의 경향은 이와 다르다.)
  - 김은숙 작가는 <파리의 연인>(2004)부터 <시크릿 가든>(2010), <상속자들>(2013)에 이르기까지 거의 신데렐라 스토리 안에 머물렀다. 역사나 사회현실을 다루는 것이 능한 작가가 아니다.(시장 선거를 다룬 <시티홀>은, 열심히 공부해서 쓴 흔적이 역력) <태양의 후예>(2016)부터 신데렐라 스토리를 벗어났고, 이는 방향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대중이 선택하는 인기 경향이 변했음을 감지했다는 의미이다.
  - 신데렐라 스토리와 연애물이 몰락하는 대신, 첨단의 인기 경향은 추리·범죄물로 변했다. 초기의 미드 모방 수준에서 벗어나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국형으로 정착한다. 재벌, 정계, 법조계, 언론계, 그 외 전문인 기득권층의 결탁으로 이루어지는 권력형 범죄를 다루는 경향(2011년 <싸인>, <로얄패밀리>부터 시작하여 <추적자>, <황금의 제국>, <시그널>, 2017년 <비밀의 숲> 등을 상기해보라)이 그것이고, 심지어 이는 신데렐라 스토리나 로맨틱 코미디에까지 침투하는 양상(2012 <더 킹 투 하츠>)을 드러냈다.
  -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신데렐라 스토리는,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오로지 진정성과 착한 마음 하나로 진정성 있는 연애·결혼과 계층상승을 동시에 이루는 서사이다. 현실적이지 않지만, 이런 서사가 대중적 인기를 모은다는 것은, 당대 사회에 대해 대중들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 평범한 사람도 계층상승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올라간 상류층이 불의와 비윤리로 가득 찬 곳은 아니라고 믿는 사회심리의 반영이다.
  -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가 한국대중예술에서 인기를 모았던 시기는 딱 두 번, 1960년대 중반 청춘영화에서 남자 신데렐라,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이다. 전자는 '잘 살아보세'의 '약발'이 그나마 남아있던 3공화국 초기, 후자는 군부독재시대를 끝낸 시기, 3저호황의 꼬트머리이자 개인의 욕망을 인정하는 자유주의의 시대에서 시작한 희망적 태도가, 외환위기에 돌고 돌아 완전히 사그라지지는 않았던 시기이다.
- 그러나 2010년대에 양극화가 점점 강화되어 '헬조선'이란 말이 나오고, 정치마저 보수화되어, 계층사다리가 끊어지고 이 사회를 지배하는 힘과 지배층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불신이 높아지면서, 신데렐라 스토리는 힘을 잃었다.



대신 사회와 역사, 정치에 대한 비판적 관심이, 영화는 물론 30~50대 여성 수용자가 강세인 드라마에서조차 대두되었다. 연애와 가족 이야기는 과거를 회고하는 향수 영역에서만 힘을 발휘했다.

- 김은숙 작가조차 저항의 역사를 소재로 삼은 것은 이러한 사회심리, 인간과 세계를 받아들이는 대중의 태도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 2017년부터 드라마에서 권력형 비리 이야기가 줄어들면서, 다시 연애 이야기의 인기가 회복되고 있다. 세상 살기가 너무도 힘드니, 그나마 연애와 가족이 심리적 버팀목이 된다는 심리의 반영인 듯. 〈그냥 사랑하는 사이〉, 〈마더〉, 〈나의 아저씨〉 등)

### 3. 근현대사 소재의 작품의 변화 경향을 반영하다

- 근현대사 소재의 영화, TV드라마의 인기 경향은 크게 몇 번 변화한다.
- 1950~1970년대까지 근현대사 소재의 대중예술 작품은, 민족주의와 반공 코드에 과도하게 갇혀 있었다. 일제로부터의 핍박, 독립운동, 6·25전쟁 소재의 작품들이 1960년대 초까지는 나름의 감동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는 과도한 당위와 명분에 갇혀 있어 답답하거나 오락적 영화가 검열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알리바이로 기능했다. (1960년대 후반에 인기를 모았던 ‘만주활극’, 1970년대의 김두한 소재 액션영화 등을 생각해 보라.)
- 1987년 6월항쟁 이후 문민정부 시대 초기에, 반공주의의 강박에서 벗어나는 작품이 붐을 이룬다. 은폐된 피해의 역사, 좌파적 저항의 역사에 착목하는 작품들이 등장했다. 영화 〈남부군〉, 〈태백산맥〉, TV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등. 즉 반공주의의 강박으로부터
- 2000년대에 이르러 정치적 명분에 강박되어 있던 기존 경향을 벗어나, 문화사와 풍속사의 재미를 만끽하는 작품이 등장했다. 사회를 정치·경제에 국한하여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미시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개인 욕망의 긍정, 자유주의에 죄책감을 갖지 않게 되었던 1990년대의 태도가 연구와 작품으로 결실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1999)에서 시작하여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 [경성기담]으로 이어지는 학계의 문화론적 연구에 힘입었다. 지식 장에서 시작한 관심이 대중예술에서 ‘모던경성’ 붐을 일으킨 것이다.

영화 〈YMCA야구단〉(2002)에서 시작하여 〈라디오데이즈〉(2007) 〈모던보이〉(2008), 드라마 〈경성스캔들〉(2007) 등이 대표적이다.

-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근현대사 소재의 대중예술 작품에서 다시 진지한 저항의 이야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2000년대 문화사, 풍속사 중심의 작품에서 축적된 다양한 콘텐츠가 바탕이 되면서, 그 위에 새롭게 진지한 저항의 이야기가 얹혀졌다.  
영화 <암살>(2015), <동주>(2015), <군함도>(2017) 등 근대사 배경의 작품은 물론 <남영동 1985>, <변호인>(2013), <택시운전사>(2017), <1987>(2017) 등 현대사 소재 작품 역시 주목할 만하다.  
2010년대의 이러한 부류의 작품의 상당수가 위인전 같은 상투적 흐름, 혹은 피해만을 부각하는 태도를 벗어나 있다는 것은 꽤나 주목할 만하다.
-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2010년대에 정치와 경제가 악화되면서, 역설적으로 정치와 경제의 중요성, 이를 위해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사의 노력과 저항에 해한 진지한 공감의 대중들 사이에서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 4. 남는 생각

-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생각·태도는 이 작품에서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일까.  
TV드라마의 흐름을 살펴볼 때, 사극은 전통적으로 왕(정치인)과 정치에 대한 당대 대중들의 태도를 보여준다. 2000년대 들어서서 새로운 작가들이 나타나면서 사극에 나타난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태도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여주었다. (<대장금>, <선덕여왕>, <뿌리 깊은 나무>, <육룡이 나르샤> 등의 김영현 작가, <불멸의 이순신>, <대왕 세종>의 윤선주 작가, <정도전> 등의 정현민 작가 등)  
이에 대한 긴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지만, <미스터 선샤인>은 이러한 흐름에서는 좀 벗어나 있다. 정치나 정치인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나 해당 사회에 대한 새로운 통찰 같은 것은 그다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이 흐름에서 벗어나 있던 김은숙 작가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보인다.  
어찌 보면 바로 이 측면이,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연애물 취향이 강한 수용자조차도 이 드라마로 끌어들이 수 있었던 요인일 수도 있다.

민주연구원 문화비전포럼 공개토론회

이제는 선샤인 시대,  
'미스터선샤인'으로 읽는 시대코드  
정치, 사회,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